

 <p><b>중독포럼</b> Korean Addiction Forum 2018.12.17.(수)</p>	<h1>보 도 자 료</h1> <p>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네트워크 “중독포럼”</p>	
	담 당 자	<p>이해국 상임이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p>
	<p>문의: 이보혜 사무국장 (tell) 02-2258-7583 (e-mail) addictionfr@naver.com</p>	

## 중독포럼, 2018년 균형과 조절의 스마트디지털 시대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송년세미나 개최

- 오는 19일(수), ‘균형과 조절의 스마트디지털시대를 위한 해법 법적규제, 자율규제 그리고 소비자 운동’ 주제로 송년세미나 개최
- 온라인콘텐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어떠한 관점으로 방향성을 제고해야하는지 방안 모색하는 자리 마련
- 중독포럼의 활동경과 보고
- 중독예방 가치구현 위해 노력한 연구자·개인·기관 대상 ‘균형과 조절’ 상 시상

- 한국사회 중독문제의 심각성, 효과적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중독포럼이 2018년 12월 19일(수) 17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B1)에서 “균형과 조절의 스마트디지털 시대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중독포럼 송년세미나>를 개최한다.
- 현대사회에서 인터넷방송,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발 맞추어 이번 포럼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는 이중성을 살펴보고, 그 해법으로 제시된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산업과 소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균형과 조절의 스마트디지털 시대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 또한 중독 분야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8년 한 해 동안 중독예방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한 연구자와 기관,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 □ 1부 주제발표는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가 “온라인콘텐츠 규제와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개념과 이중성,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규제 현황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규제 방향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온라인콘텐츠: 이중성 ▲온라인콘텐츠규제의 Keywords ▲한국의 온라인콘텐츠 규제는 충분인가 ▲국가 강제의 온라인 내용 규제는 실효성이 있는가 ▲온라인콘텐츠 규제의 새로운 트렌드 ▲왜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에 뒤쳐져 있는가 ▲온라인콘텐츠 규제의 새로운 방향과 이념적 기초 ▲Random Box/중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소비자기본법 제4조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온라인콘텐츠에 어떤 소비자 규제가 필요한가 ▲소비자보호 규제에 전제조건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의 발표내용은 크게 한국 온라인콘텐츠 규제 현황, 문제점, 향후 규제의 방향과 접근 방식, 소비자의 관점에서 규제를 구성되었다. 먼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아동청소년 보호, 자기 조절, 부모통제, 중독, 게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진 온라인콘텐츠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 한국 온라인콘텐츠 규제 실태와 평가로는 ‘국가 강제의 내용규제’, ‘등급분류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이중규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규제하는 ‘게임 섯다운제’에 대해 과한 측면이라 평가하며 반면, 사업자 측면에서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보 제공, 역량강화 수단 부족’, ‘부모의 양육권, 부모의 통제 역량강화 수단 부족’, ‘소비자 보호 규제’ 이러한 측면이 부족하거나 미비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국가 강제의 온라인 내용 규제는 온라인콘텐츠의 고유한 규제가 아니며, 오프라인에서의 규제가 온라인으로 확장되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 규제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규제/진흥’이라는 이원론에 기초한 부처 간의 권한 다툼으로 환원된 것과, 명분 만들기에 역량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 온라인콘텐츠 규제의 새로운 방향은 국가 강제의 내용 규제보다는 이용자 보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콘텐츠 운영방식, 이용방식에 대해 더 초점을 두어야 함을 말하였다. 또한 국가 규제도 사업자를 매개로 실행하는 등의 사업자책임에 기반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가야함을 역설하였다.
- 결국은 온라인콘텐츠 규제는 실효성이 약하고 위헌논쟁으로 확장이 어려운 국가중심의 내용자체의 규제 강화보다는 사업자 자율규제와 이용/운영방식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 온라인콘텐츠 규제의 새로운 접근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권’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

에 있어 국가는 부모의 자녀양육권 강화나 보충의 차원에서 이해해야하지 부모역할 대체가 되어선 안 된다며 부모의 자녀양육 관한 결정을 중시하였다.

- 한편 온라인콘텐츠 중독에 대한 접근에서 기존 접근인 ‘질병이다/아니다’ 프레임과 단순히 콘텐츠 이용이 원인이므로 이용시간 제한은 단일원인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며, 규제의 실효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중독의 영향이 적은 이용방식 도입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의 책임 강조의 접근을 해야함을 말하였다.
- 마지막으로 온라인콘텐츠에서 필요한 소비자 보호 규제에 있어서는 주로 ‘랜덤박스 확률 고지’, ‘중독 위험성 고지’ 등과 같이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춘 규제와 소비자 결정권을 존중하는 ‘선택적 셋다운’ 등을 제시하였다.

○ 이어 지정토론으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은 “스마트디지털시대, 부모와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콘텐츠 사용에 대한 최대 수혜 계층과 피해 계층을 살펴봐야 하며, 학교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기관과의 연대와 법적규제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또한 시민연대가 지역사회와 협력사례를 발표하며 현 시대에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실천방법을 제안하였다.
-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청소년 친화적 스마트디지털 환경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스마트디지털리터리시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온라인콘텐츠 규제는 친기업적인 정책에 가까우며, 생산자 규제와 소비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물려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 입장에서 규제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 2부에서는 2018년 한 해의 중독이슈를 정리하는 “2018년 10대 중독 이슈와 뉴스” ([참고1](#))가 진행되며, ‘균형과 조절’ 신진연구자상 및 실천상([참고2](#))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1. 2018년 10대 중독 이슈와 뉴스

참고 2. '균형과 조절' 신진연구자상과 실천상 수상자 소개

1. WHO, '게임중독 6월 국제질병분류 제 11차 개정판에 질병코드 등재예고
2.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문제 심각(게임 사행성논란)
3. 불법영상물 등 유튜브, 음란영상 중독 증가
4. 청소년 도박 점점 심각, 도박환자 3명 중 2명이 2,30대
5. SNS 청소년 자해 유행
6. '윤창호 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7. 정부차원,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추진
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정신건강복지법) 마련
9. 중독포럼 6주년 포럼 / 중독폐해예방 및 회복주간 기념행사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
10. [국외] 미국 국립보건원 '소년기 뇌인지발달(ABCD) 사업'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비디오 게임기가 어린이 뇌 구조에 물리적 변화 가한다는 연구결과 밝혀

## 참고2. '균형과 조절' 신진연구자상과 실천상 수상자 소개

### ▲ 균형과 조절 신진연구자상

#### 김혜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사과정)

- 2017, 2018년 SCI 학술지에 행위중독 관련 연구논문을 주저자 및 공저자 3편 발표하였고, 그 중에서 2018년에 PLOS one에 "Relationship among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friendship quality, and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in South Korea"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가정폭력과 부모중독을 경험한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기통제(self-control)와 우정의 질(friendship quality)의 수준에 따른 그룹을 비교한 결과, 자기통제와 우정의 질의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가정폭력, 부모 중독을 경험한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자기 통제와 우정의 질이, 위험 요인은 가정폭력, 부모 중독과 같이 가족 역기능이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 이수비(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8년 SCI 및 학진 등재지에 알코올중독 관련 연구논문을 주저자로 총 3편 발표하였고, 그 중에서 한국 남성의 우울과 음주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Men's Drinking and Depression: A 4-Year Longitudinal Analysis" 논문을 Alcohol and Alcoholism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정상음주그룹과 문제음주그룹으로 나누어 우울해서 음주를 하게 되는지, 음주로 인해 우울해지는지에 대하여 4개년도 data로 상호교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상음주군에서

는 음주와 우울 간에 유의한 교차적 인과관계가 없었다. 반면, 문제음주군은 첫 시점에서 음주와 우울이 다음해의 우울과 음주에 모두 유의하게 교차적 영향을 미쳤으나, 2-4차년도는 전년도 음주만 다음해의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음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증을 악화, 지속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균형과 조절 실천상(개인)

### 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 권장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은 교직생활을 하다 1994년 시민운동가의 삶의 현장을 바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데 힘을 쓰며, 정부의 놀이미디어 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2005년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교육 민간기관인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청소년 대상으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등에 대한 각종 강의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이인숙(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 부회장/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한국 중독관리센터 50개를 대표하여 각종 지역사회 기관으로써 역할,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중독 관련 활동에 힘 써주셨다. 올해 2018년 국회와 함께 중독자 회복주간 기념 시상식과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셨다.

## ▲ 균형과 조절 실천상(기관)

###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방수영)

-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가장 선도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서비스를 매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4년 다진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및 조기개입 서비스(SBIRT)인 디지털 디톡스 사업을 진행하여, 4년 간 72개교에 개입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 노원구 거주 중고교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디지털 사용 문화를 촉진시키고자 시행하는 마을학교 사업과 인터넷 스마트폰 문제를 조기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집 부모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은숙)

- 201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연대하여 창립한 시민연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 학생, 교사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심포지엄, 기관 협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